자관 스님,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취임

12월 6일, 부산 자비암서 취임법회
'정법 안립·교구 화합' 집행부 출범
원로위원 추대 및 발전 기금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태고종 제21대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 스님이 취임 일성으로 교구 행정 안정과 화합을 선언했다.

12월 6일 부산 자비암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부산교구가 정법 안립의 중심 도량으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관 스님은 "교구종무원장 소임을 개인적 영예가 아닌 교구 사부대중이 부여한 책임의 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부산 지역 태고종 스님들과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교구를 일으켜 왔듯, 이제는 정성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종무원의 문을 활짝 열고, 투명하고 청정한 행정을 통해 모두가 신뢰하는 교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교구는 이날 수행과 포교, 교구 발전에 헌신해 온 도광·고담·지만·삼광 스님을 원로위원으로 공식 추대했다. 집행부 실무진으로는 총무국장 도명 스님, 교무국장 혜광 스님, 재무국장 지운 스님, 문화국장 보해 스님을 임명했다.

이날 자관 스님은 총무원에 종단 발전기금을 1000만원을 전달하며 교육·포교·승가 사업 활성화를 지원했다. 또한 종단 행사와 교구 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송미화 자비암 신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취임식에서는 종단과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지며 자관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에서 "자관 스님이 그간 부산교구 발전과 종무행정 정비에 흔들림 없이 헌신해 온 경륜은 오늘의 교구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교구는 예로부터 태고종의 포교·문화·전법을 이끄는 중심지로서 종단의 위상을 지켜 온 지역"이라며 "자관 스님이 다시 종무원장의 소임을 맡아 주심으로써 부산교구가 전국 교구 가운데 선도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2월 6일 부산 자비암에서 열린 제21대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장 취임식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왼쪽)이 자관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어 호법원장 구산 스님, 정오 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 지허 스님(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협의회장), 도성 스님(지방종회 의장)이 축사했다. 재가불자를 대표해 서지영 국회의원(동래구)과 장준용 동래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교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자관 스님은 월봉 광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개인택시 법륜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재가 공동체 불교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현재 동래구 불교연합회장을 4회째 맡고 있으며, 태고종 총무원장상과 조계종 포교원장상, 부산광역시장상 3회, 교통부장관상, 해운대구청장상, 부산경찰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장병주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장 취임

12월 8일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12월 8일 국제식품 양정점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을 열고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을 알렸다.

장병주 신임회장은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지역 재가불자의 모범적 모임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는 신행이 포럼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역대 회장단이 닦은 토대 위에서 포럼이 지역 불교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년 동안 포럼을 이끌어 온 정종원 전 회장은 "새로운 회장이 포럼의 미래를 더욱 굳건하게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병주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신임 회장(오른쪽)과 정종원 전 회장의 기념 촬영 모습.

장병주 회장은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사무총장을 10년간 맡아 조직 운영을 총괄해 왔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사무총장, 사상구 모라동 운수사 신도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보현장학회, 올해 장학금 3110만원 지원

설립 30주년…12월 5일 수여식

보현장학회(이사장 정여 스님)가 올한 해 동안 총 61명의 학생에게 31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꾸준한 발걸음을 이어 갔다.

12월 5일, 장학회는 삼랑진중고등학교에서 제2차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20명 등 총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삼랑진고 학생들에게는 총 1000만원, 삼랑진중 학생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돼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앞서 11월 22일, 장학회는 여여선원에서 제1차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해 중학생 7명,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4명 등 3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대학생 장학금 1400만원을 포함해 총 2110만원이 전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축문화대상에 일운 스님·김성규·김연호

영축문화재단, 12월 30일 통도사서 시상식

제13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에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과 김성규 영남대 명예교수, 김연호 제천 진주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 스님)은 12월 9일 제13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포교(원력) 부문 수상자인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은 심전복지관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2011년부터 '열반만일 수행결사회'를 결성해 미국·싱가포르·유럽 등 전 세계 2만여 명에게 매일 아침 '마음의 편지'를 보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다.

학술(문화) 부문 수상자인 김성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는 38년에 걸쳐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해 '우리말 불교경전 총론'을 발간하는 등 불교 교학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13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인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김성규 영남대 명예교수, 김연호 제천 진주동물병원장(왼쪽부터).

봉사(실천) 부문 수상자인 김연호 제천 진주동물병원장은 제천 거사림회 창립과 운영, 불교 문화유산 기증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50여 년간 지역 불교 활성화에 헌신해 왔다.

제13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30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는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2주기 추모 다례재와 함께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이날 부산 해동고 장학금 전달식도 열린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찬불가로 밝힌 자비의 등불

2025 부산불교합창제 성료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옥희)가 주관한 '2025 부산불교합창제'가 불자들의 정성 어린 음성공양 속에 성대히 열렸다. 12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합창제는 부산 시내 주요 사찰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 등 10여 팀이 참가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불교문화의 장을 이뤘다.〈사진〉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은 치사를 통해 "불교음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성으로 승화한 수행의 공양"이라며 "가사 하나, 음정 하나에 담긴 법문이 중생의 마음을 맑히고 평화를 전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무대에 오르는 합창단 모두 자신의 노래가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는 등불임을 기억하고, 원력으로 가득한 무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옥희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찬불가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합심해 만들어 내는 공덕의 노래"라며 "이 자리가 부처님의 법음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공연에서는 사찰별 합창단이 그동안의 수행과 정진을 담아 낸 다양한 찬불가 무대를 펼쳤다. 부산불교연합합창단을 시작으로 삼광사 화엄합창단, 혜원정사 합창단, 대광명사 소리장엄 합창단, 불지사 합창단, 선암사 마하야나 합창단 등이 차례로 울림 깊은 선율을 선보였다.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의 순수한 음성은 행사장을 더욱 맑게 채워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신뇨엔, 연제구 '사랑의 김장나눔' 후원

12월 5일 전달식…10년째 참여

재단법인 신뇨엔(대표원장 정경국원)이 12월 5일 연제구청에서 열린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신뇨엔은 올해 300만원을 후원하고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김장 담그기 봉사에 동참해 지역사회 복지에 힘을 보탰다.〈사진〉

대표원장 정경 국원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뇨엔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김장나눔 후원과 봉사에 참여해 왔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10년 동안 변함없이 나눔을 이어 온 신뇨엔의 지속적인 관심과 온정이 연제구 복지 안전망을 더욱 든든하게 만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